서길원 大記者

독자와 함께 詩 읽기

아름다움은 그 아픔을 극복했을때…

수년 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성 유방암 유전자(BRCA) 때문에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시도했다고 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남자들이라 해도 신체의 부족한 부분을 지닌 사람은 감추려고 든다. 여자라면 부끄러움을 더해 더욱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화자도 마찬가지다. 잘라 떼어내 버린 한쪽 가슴이 보이는 앞모습 대신 어깨선이 드러난 뒷부분을 그리려 했다. 친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춰주려는 나름의 배려에서 였다.

하지만 친구는 오히려 당당히 드러내려 한다. 결국 부끄러움은 친구가 지닌 게 아니라 이젠 화자의 몫이 됐다.

"수술자국을 슬며시 만져보니 누가 이렇게 고운 수를 놓았네 가슴에 꽃을 문신했네" 참 고운 표현이다.

떼어낸 가슴의 빈자리, 수술 자국이 선명한 그곳, 시인은 아름다운 꽃을 수놓았다고 한다. 어쩌면 보기 흉할지도 모르는 그곳이 화자에겐 더없이 아름다운 곳으로 보였을 지 모른다. 그 자국보다 당당한 그녀 마음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더 빛난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헐리우드 배우 율 브리너다. 율 브리너는 젊었을 때 원인 모를 탈모에 머리칼은 쑥쑥 빠지고, 마음속에선 자존감이 뭉텅뭉텅 빠져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율 브리너는 듬성듬성 난 머리칼을 다 밀어버린다. 그래 탄생한 가장 매력적인 대머리...

'왕과 나'(The King and I)란 뮤지컬로 4525번의 공연을 했고, 같은 제목의 영화에서도 뛰어난연기를 하여 1956년 '아카데미 주연 남우상'을 받았다.

"이 황홀한 꽃 한 송이를 피운 /그 뿌리는 어디에 감춘 거니?" 여성의 아름다움, 아니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과 참모습은 바로 그 아픔을 극복했을 때 잘 드러난다고 한다.

시인이 주목한 점도 바로 그런 부분 일 게다. 또한 신체적 결함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결함까지 포함해, 그런 부분을 감추려 하지 말고 드러내 이겨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오늘 주변 사람들을 잠시 둘러보자. 혹 못난 사람이 보이면 등을 두드려 주자. 그는 다시 일어설 거니까.

누드를 그리다 6 _이시훈 作

유방암 수술을 한 친구와
목욕을 하면서 등을 밀어 준다
어깨선이 하도 고와 그리고싶다 했더니
가슴을 그려 달라고 한다

수술자국을 슬며시 만져보니
누가 이렇게 고운 수를 놓았네
가슴에 꽃을 문신했네

가는 목과 부드러운 어깨 아래로
이 황홀한 꽃 한 송이를 피운
그 뿌리는 어디에 감춘 거니? <2002년>

▶이시훈(1959년생)여류시인

서울 출신으로 2000년 계간 '다층'을 통해 등단.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전열기구 안전관리로 따뜻한 겨울 나기

장 희 식
/강진소방서 성전119안전센터장

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 가정에서는 겨울을 대비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전열기구가 집 구석구석 차지하고, 동파 등 위한 히터 가동이 잦아지고 있는 이 시기 난방기구 화재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난방장치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이 크다.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난방기구 근처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않고, 난방기구 청소를 생활화해야 한다.

전기난로, 전기매트, 온풍기 등을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한 이불, 옷 등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난방기구의 관리가 미흡하여 기구 내 먼지 등이 열로 인하여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화재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 전기코드는 문어발식 사용을 피해야 한다. 난방기구의 경우 다른 전자기기에 비해 필요 전압량이 높기 때문에 합선 및 누전으로 인해 겨울 화재의 주범이 된다.

특히 멀티탭을 많이 사용하는데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어발식 사용은 일절 금지해야 하며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경우 가정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하나의 위력은 소방차 1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삶의 터전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지킬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해야한다.

난방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따뜻한 겨울을 즐기며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전한 난방용품 사용은 우리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예방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소방차 전용구역' 안전 위한 공동체의 약속

장 아 름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는 작년 전체 화재 3만8639건의 12.2%인 4719건이고 인명피해는 560명으로 전체 화재 피해자 중 24.5%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소방기본법으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전용구역은 만약을 대비해 항상 비워두어야 하는 공간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에 의한 제재 이전에 전용구역을 비워두는 행위는 예기지 못한 사고로부터 나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공동체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1가구 당 다차량 보유 가구수가 증가하고 심야시간대 주차차량이 몰리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면 비어있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것이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소방활동에서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전용구역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소방차량의 현장 접근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할 안전구역이다.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줘야 할 우리 모두의 배려가 아닐까 한다.

기사제보 E-mail :honamnews@hanmail.net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제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 · 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처남도프린테크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한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 · 독자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충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2632-4504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3610-9153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무 안…010-9271-8517
여 수…010-8587-2288
함 평…010-3095-5842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